# 정법사, 근대 마산지역 계몽운동 견인

## 김성순 교수, 정법사 창건 109주년 학술세미나서

**1912년 통도사 마산포교당 창건**
**정토종 등 日불교도 포교소 세워**
**학교 등 건립하며 지역포교 선도**
**장지연 등 마산포교당 드나들며**
**마산지역 항일운동 중심지 '부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시기 한국불교는 역동적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본사들이 각 지역에 세웠던 도심포교당이다. 통도사 마산포교당인 정법사는 1912년 4월 8일 마산시 추산동에 창건됐다. 근대 시기 마산 정법사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와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는 4월 8일 정법사 창건 109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기록과 문화유산'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성순 동국대 연구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마산 지역에서 정법사가 일본불교에 대응해 어떤 활동과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 따르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 침략을 추진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된다. 부대가 진주하는 곳에 정토진종, 일련종, 일련정종, 조동종, 정토종, 진언종의 각 파별로 군종승을 파송하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산, 군산, 목포, 부산 등 항구에 별원이나 포교소를 설립했다.

특히 마산은 일본에게는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선이었다. 일본 육군성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마산 일대의 토지를 사들여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를 설치한 것은 마산의 중요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 거주 일본인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1899년 개항 당시 103명이었으나 1907년에는 3297명으로 늘었다. 일본불교도 마산지역으로 빠르게 들어왔다.

일본불교 중 가장 대중적이었던 정토종은 1911년에는 전국 23개소의 포교당을 설립했고, 마산 신월동에 '정토종 마산교회소' 를 운영했다. 진언종 풍산파(豊山派) 마산포교소는 신정(新町) 57번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진언종 고야산(高野山) 대사교회(大師教会) 마산지부는 통정(通町) 1정목(丁目) 24에 세워졌다. 이밖에도 일련종, 조동종, 정토진종 대곡사파 등이 마산 지역에 포교소를 설립하고 지역 포교를 비롯해 각종 사회 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 마산지역 일본 포교소에 대해 한국인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여러 기록과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마산에 진출한 일본불교 포교소들이 마산 사람들의 신앙적 영역 안에 쉽게 동화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면서 "이는 마산 지역 한국인들이 일본불교를 거부하고 한국불교의 신앙영역을 고수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912년 창건된 정법사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 김 교수는 교육과 포교, 항일 운동의 영역에서 활동을 분석했다.

1922년 7월 마산포교당에서 조직한 불교진흥회에서는 포교당 예산 1만 원을 투입해 보통학교를 건립하기로 한다. 1923년에는 교사를 완성하고 학생 120명을 모집해서 배달학원의 문을 열게 된다. 이는 통도사 마산포교당과 마산불교진흥회의 협력으로 이뤄졌고, 학교 운영은 마산불교진흥회 회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정법사는 1927년 4월 12일 배달유치원(현 대자유치원)을 설립하게 된다. 마산사립 배달유치원은 마산청년회와 통도사 본산에서 연합 경영하기로 하고 1927년 봄부터 설립한 이래 1년간 사회 유지들이 1000여 원을 후원하여 제반설비를 완비했다.

김 교수는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배달학원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서 "강연회와 음악회도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가극단을 결성해서 경남 요지의 사찰에 순회공연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초대 주지 경봉 스님과 장지연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마산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정법사와 장지연이 설립한 마산불교진흥회에는 민족주의자, 지역 항일운동가들이 출입했다.

마산지역 독립운동가 중 마산불교진흥회 연관자는 괭삼진, 명도석(배달학원), 여해, 이형재, 최철룡 등이다. 괭삼진은 마산불교진흥회원이며 명도석은 배달유치원 설립 준비위원이자, 후원자였다. 신간회 마산지회 회원이었던 여해는 배달학원의 교사로 일했다. 마산불교진흥회 회원이자 배달유치원장을 지냈던 이형재는 신간회 마산지회 국권회복단 중앙총무 역할도 맡았던 사람이었다.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마산불교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을 설립해 교육, 포교, 지역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까지 해냈다"면서 "작은 규모의 포교당에 속하는 포교사와 신도들이 당시 마산에서 해냈던 사회사업과 독립운동의 성과는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이 '개화기 포교당 역사의 조명' 을 비롯해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마산 정법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를,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가 '근대 불교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논구' 를 각각 발표한다.

# 가야불교 전모 밝힐 산지가람터 확인

**불교문화재硏 · 김해시**
**대청동사지서 절터 찾아**

**통일신라기 기단 석축 등 발굴**
**왕후사, 장유사 사지로 추정돼**
**가야불교 전승 중요 유적 평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김해 대청동사지 전경. 통일신라 사찰 건물지가 확인됐다.

가야불교 전승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통일신라 시기 산지 가람터가 확인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김해 대청동사지' 에서 통일신라 시대 절터를 확인했다"면서 4월 2일 유적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 69-11번지에 위치한 절터는 지난 2019년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실시한 '사지 현황조사' 를 통해 기단석축과 통일신라 시대 기와가 확인돼 왕후사 또는 장유사 등 가야 전승과 관련된 사지로 추정돼 왔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 8월부터 가야문화권 학술발굴조사의 하나로 김해 대청동사지 시 ·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중요폐사지 시 · 발굴조사사업으로 선정해 함께 조사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길이 40m 정도의 석축과 기단 2기, 초석을 포함한 건물지 2동 등 통일신라 시대 유적들이 확인됐으며, 통일신라 시대 유물인 선문(線紋) 기와와 토기 등과 함께 출토됐다.

이번에 통일신라 시기 건물지가 확인된 김해 대청동 사지는 불모산 용지봉 아래 자리한 장유사에서 동남쪽으로 약 1.4㎞ 정도 떨어져 있다. 왕후사와 장유사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내용이 수록됐다.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 8대손인 김질왕(재위 451~491)이 시조모 허황후의 명복을 빌고자 452년 왕후사를 창건했다. 이후 500년 뒤에 같은 자리에 장유사가 창건되면서 왕후사지는 장유사의 헛간과 마굿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같은 기록 등을 토대로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김해시 측은 대청동사지가 가야불교 전승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으로 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김해 대청동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가람과 관련 유물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불모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유적의 현황과 장유사의 창건, 수로왕 처남인 장유화상의 가야불교 전래 등 가야불교의 전승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 日원로학자, 한국학 연구 일본학계도 인정

**후지모토 교수 〈조선본 사부〉**
**日 최고 은사상 · 학사원상 수상**
**동국대 불교학술원 후원해 출간**

일본 원로학자가 50년에 걸쳐 연구 · 집성한 한국 서지학 연구물이 일본학술계 최고 영예상들을 잇달아 수상했다. 특히 해당 연구물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후원으로 출간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본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8년 7월 동국대 출판부에서 간행한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사진) 도야마 대학 명예교수의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사부(日本現存朝鮮本硏究 史部)〉가 일본학계 최고 영예인 은사상(恩賜賞)과 일본학사원상(日本學士院賞)을 수상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일본학사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상과 같은 위상이며, 은사상은 학사원상 중에서도 특히 권위 있는 것으로 일본 왕실의 하사금으로 제정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후지모토 교수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후지모토 교수는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연구비와 출판제작비 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후지모토 교수의 연구를 후원했고, 지난 2018년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사부〉가 출간되며 결실을 맺어 결국 일본학사원상, 은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후원으로 동국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의 〈일본현존조선본 연구 사부〉

역사서를 정리한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사부〉는 신라에서 대한제국 말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래돼 일본에 현존하는 한국본 사부 자료 2960건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정보를 담은 책으로 일본어로 되어 있다. 50년 동안의 현장 답사로 만들어진 이 책은 정밀함을 위해 총 28가지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기존 한국의 목록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판(同版)과 이판(異版)의 구별을 시도했고,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의 이름이 있는 문헌일 경우 그들의 이름까지 망라해 수록함으로써 각수의 이름을 통해 간행연도와 간행지역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지모토 교수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할 정도로, 일본에 소재한 한국 고전 문헌의 연구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사부(史部) 이전에도2006년 일본에 전하는 한국의 문집 문헌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집부(日本現存朝鮮本硏究 集部)〉를 출간했으며, 이 공로로 2007년에는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국고문헌 연구에서 비롯된 양국의 학문적 교류는 후지모토 교수가 수상한 '서송한일학술문화상' 과 '동숭학술상' 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후지모토 교수의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불교를 포함한 제자(諸子)의 문헌 자부와 사사오경과 소학에 해당하는 경부도 무사히 출간해 침체되어 있는 학계에 바람직한 지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